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1호 [루게 제24369호] 주체102(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 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상장 서홍찬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연건축면적이 6,900여㎡인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은 당과류와 빵을 다량생산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주는 식료가공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에게 당과류와 빵을 더 많이 공급해주시기 위하여 이 공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생산에 필요한 첨단설비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인들에 대한 하늘같은 사랑을 심장깊이 새긴 조선인민군 제354군부대와 공장의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맡겨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당과류들을 만족하게 보시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몸소 과자맛을 보아주시며 모양도 곱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식료품들에 대한 군인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공장에서 작은 생산면적에서 적은 로력을 가지고 생산원가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는것은 당이 바라는대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손로동을 없애고 로동자들을 힘겨운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일터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멋쟁이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녀성들이 일하는 자기들의 일터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꼭 오실것만 같아 종업원들이 스스로 현장에 나와 생산을 다그치고있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머니날을 맞는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이 공장은 군인들에게 고급당과류와 고급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하는 식료가공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과자작업반, 빵작업반, 짜배기작업반, 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현대화실현에서 야심만만한 목표를 제기하고 최첨단들과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지령과 감시, 조절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한데 대하여 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특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군대장 장정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국각지의 여러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체육시설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에 인공잔디를 본보기로 깔아놓도록 하였다



수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과 경기를 원만히 하도록 하자면 축구경기장들에 질 좋은 인공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에 인공잔디를 깔아주면 선수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수 있을뿐아니라 풍치도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국의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축구훈련장처럼 꾸리자면 질 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모든 체육시설들을 손색없이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축구훈련장에 새로 깔아놓은 인공잔디를 보시고 천연잔디와 같은 질감이 난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인공잔디를 깔 축구훈련장이 자기 의 기능을 다할수 있게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기반조성을 잘 하였으며

배수체계도 철저히 세웠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축구선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은 최고에 최고라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늘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보내주고있는 공장의 전제로 동계급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 군인들의 어머니로 불리우수 있게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에 높이 받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군인들에게 갖가지 당과류와 빵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해줄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일제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에게 아물지 않는 가슴아픈 상처가 있다.

오늘이 바로 일제 《울사5조약》을 낳은 때로부터 108년이 되는 날이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울사5조약》을 낳아 조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를 강도 일제에게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당시 나라를 지킬 변변한 무력이 없어 낳은 일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슬픔과 울분을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장장 한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울사5조약》을 낳은 일제에 대한 파멸적인 원한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일제에 의해 낳진 《울사5조약》의 강제성과 비법성을 다시금 온 세상에 까발렸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울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다. 강압으로 시작되고 협박으로 강제되었으므로 무효로 낳진 철두철미 강제성과 비법성으로 일관된 조약 아닌 《조약》이다.

이 《조약》은 계획당시부터 폭력을 전제로 하였고 《협상》도 협박의 방법으로 단행하기로 되어있었다.

일제는 1905년 10월 27일에 채택한 《각의결정》에서 조선을 《보호

국》으로 만들것을 기본목표로 내세우고 《조약결정》을 위한 실무적절차와 함께 군대의 한성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강압행동을 예견하였다. 지어 조선봉건정부가 《조약》을 거절하는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우리 나라에 대한 《보복군을 확립하였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방법까지 타산하고있었다. 《울사5조약》의 낳조과정은 바로 이 《각의결정》이 그대로 강행되는 과정이었다.

일본왕의 특사로 조선에 온 칙략의 원후 오(이등박문)는 이미 짜놓은 계획에 따라 서울의 요소요소마다 중무장한 일본척박군을 배치하였고 군사훈련까지 벌여놓았다. 당시 서울의 살벌한 분위기에 대해 《대한계년사》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11월 17일 아침 5강(한강, 동작진, 마포, 서강, 양화진) 각에서 주둔하고있던 일본군이 모두 한성에 들어왔다. 기병 700~800명, 포병 4000~5000명, 보병 2만~3만명이 사처에 총횡질주하여 우리 국민은 한치도 자유롭게 걸출수 없었으며 궁성안팎은 겹겹이 포위되어 드나드는 대소관리를 전후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포와 조선주둔 일본척박군사령관 하세가와, 일본공사 하사키는 헌병과 순사들을 앞세우고 황궁안으로 쳐들어갔다. 군사경비대로 왕실경위대의 저지선을 뚫고 신성불가침의 방에 뛰어들었다. 고종앞에 나타난 이포는 눈앞을 부러뜨려서 노기에 찬 큰소리로 《오늘의 요건은 오직 황제인 당신의 결심여하에 있다.

당신이 조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것은 자유이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자체로 결심한바가 있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에 호소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고종을 포로삼 문하듯 하였다.

밤이 깊을 때까지도 황제와 대신들이 일제의 강압에 굴어들지 않자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관정(숙소)에서 안절부절하고있던 이포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하세가와와 함께 밤 11시에 침략군을 이끌고 다시 황궁에 쳐들어 가 황모두하게 하였다.

당시 내각회의의 광경에 대해 이포의 부하였던 니시오즈키 교고는 다음과 같이 실로하였다.

《...수습없이 회의장에까지 들어가 전권위원인 하사공사를 제껴놓고 연필을 뿔뿔히 각 대신들에 대한 <징벌조치>를 시작하였다.》

《언제까지나 꿈지럭거리면서 생각했듯 판이 나지 않는다. ...한사람 한사람 반대인가 찬성인가 의견을 묻는 데 명쾌히 답변해달라. 먼저 찬성대신의 의견은...》하고 말하자 한 규실참정대신은... 절대반대라고 말히 하였다.

...참정대신이 소리내어 통곡하기 시작하였으며 종래 별일도 없었으나 이때 이포후작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 때정할것 같으면 죽어버려라. >고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데...《<조인>하는 단계가 되어 조인할정대신은 의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를 의아하게 여기자 이포후작은 <죽어버렸을대지. >라고 중얼거리더니 태연하게 앉았었다.》

이처럼 일제는 총칼로 위협공갈하며 강제로 저들이 준비한 《조약문》을 대신들이 《결정》짓게 하고 친일파들을 내세워 조선봉건정부 외부의 인장을 훔쳐내어 제멋대로 찍고 《조인》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이 《조약》에는 황제의 수표와 국새날인이 없다.

참으로 《울사5조약》의 낳조를 위한 일제의 강박과 위협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의 극치이며 이 조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질수 없는 민중조약이라 불려왔다.

당시 서울주재 도이첼란드의 한 외교관은 본국에 보낸 정치보고서에서 《울사5조약》의 비법성에 대해 《일본이 공개할 문건은 완전히 강압에 의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국제법의 상설전문기관의 하나인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울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하여 《수천년을 헤아리는 조약에서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05년 《울사5조약》이다.》라고 명백히 까발렸다.

력사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실례는 있어 이포후작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 때정할것 같으면 죽어버려라. >고 큰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데...《<조인>하는 단계가 되어 조인할정대신은 의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를 의아하게 여기자 이포후작은 <죽어버렸을대지. >라고 중얼거리더니 태연하게 앉았었다.》

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무참히 유린하였다. 그리고 840만여명을 잡치,련행하여 노예로등을 강요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꿈꾸며 우리의 말과 글 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었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들과 자원을 파괴,략탈하는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선인민이 일제에 의하여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불행으로 하여 11월 17일은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날로 새겨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구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지어 역사교과서에까지 일본은 《울사5조약》에 의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했다고 오히려 자랑하고있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신성한 땅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고있으며 일제의 성노예범죄행위를 본인들의 《저원적요구》나 《의사》에 의한것이었다고 꾀쳐내고있다. 그리고 야스쿠니신사참배를 정례화, 합법화, 의무화하고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죄악에 대한 역사적책임도 회피하려는 철면피하고파멸적인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 끓어오르는 우리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배,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김 철 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건설

별가리아신문의 글

별가리아신문 《노보 라보프 니체스코 델로》 1-15일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건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같은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나라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놓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빈터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시작하였다.

오늘 조선의 수도 평양은 현대적인 도시로 전변되었다.

조선에서 건설의 특징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른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에는 창경거리가 새로 일떠섰다.

현대적인 극장들과 체육시설들, 대기념비적건축물들도 많이 건설되었다.

강조할것은 조선이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건설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는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가장 큰 위험

중국 《환구시보》의 글

중국의 《환구시보》 12일부가 《일본이 바로 아시아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여러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력사적죄행을 아직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의 안전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요위협은 일본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후 일단 국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면 중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꺼리낌없이 침략하고 노예화하였다. 때문에 매년 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위험인가 하는것은 사실상 매우 명백하다.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본의 엄중한 위협앞에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인 위험을 여체하고 좌절시킬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반꾸바봉쇄를 끝장낼것을 호소

중국의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꾸바에 대한 경제, 상업 및 금융봉쇄를 끝장낼것을 미국에 호소하였다.

그는 10월 29일 유엔총회가

미군함선의 령해침범에 항의

폴란드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초스가 8일 한 TV방송에 출연하여 미군함선이 령해를 침범한데 대해 항의하였다.

그는 미해군소속 함선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령해에 들어와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미군함선의 령해침범에 항의하는 외교장관을 미국정부에 제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이보다 앞서 7일 동가리브 지역 나라들은 에네르그분야에서의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였다.

범죄방지지도

베루에서 범죄방지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5일 이 나라 내무상은 범죄를 막고 사회안전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 7개의 경찰기지를 새로 설치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지들에 수천명의 경찰들을 배치하게 된다고 한다.

상야밀수행위 적발

케니아경찰이 10일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상야밀수행위를 적발하였다.

결과 1명의 밀수업자가 체포되고 많은 량의 상야가 압수되었다.

국내총생산 증대

끼르기즈스탄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옷, 고무 등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한다.

13일 이 나라 상업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국제총생산 증대

케니아경찰이 10일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상야밀수행위를 적발하였다.

결과 1명의 밀수업자가 체포되고 많은 량의 상야가 압수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책 등에 경고

팔레스티나수석협상자 사비오 에메라트가 13일 중동의 평화회담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거둬드는 유대인 정착촌확장책 등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날 이스라엘당국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팔레스티나령도에 2만개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후 그는 그러한 책동이 팔레스티나와의 평화협상과정에 해를 끼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유대인정착촌건설계획을 당장 중지시켜줄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 리사국 지위를 정식 거절

사우디 아라비아가 12일 2년 임기의 유엔안보리사회 리사국 지위를 정식 거절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안보리사회가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서 무능력한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날 유엔안보리사회 사우디 아라비아상임대표가 유엔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나라의 립장공시 하였다.

이때 앞서 지난 10월 18일 이 나라 외무성이 안보리사회 리사국지위를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회 예산 지원 지지를 최 저 수준 기록

미국인들속에서 당파적분쟁만을 일삼고있는 국회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이 나라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 대한 지지율이 전당에 비해 2%도 떨어 9%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로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39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경제형편에 비판

오스트랄리아의 기업체들에서 경제형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2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0월에 경제형편에 대한 기업체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달보다 7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새 국가 예산 채택

오르단내각이 13일 2014년도 국가 예산을 채택하였다.

예산은 경제를 3.5% 성장시

자체의 인터넷을 구축할 계획

남아메리카국가동맹이 최근 미국정보기관들의 정탐행위에 대처하여 자체의 인터넷을 새로 구축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동맹성원국들만 리용할수 있는 인터넷체계를 자체로 개발하여 운영하게 된다.

베네수엘라과학기술 및 혁신 상에 이에 대해 밝히면서 인터넷을 리용하여 부당한 간섭행위를 일삼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통신거래를 존중할 줄 아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기행

향하였다.

차창밖으로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다.

베이징을 떠날 때는 탁엽이 지는 가을이었는데 그곳은 푸른 숲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여름철풍경이었다.

북과 몇시간전지 본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장원회일꾼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시의 기후는 아열대 해양성기후입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가울이라고 하지만 이곳의 날씨는 무더웠고 많은 사람들이 반소체로 입고있었다.

우리가 속속 도착하니 호텔 일꾼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호텔 주변은 남방특유의 식물들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로 단장되어있었다.

남방의 정서가 이채롭게 안겨오는 호텔입구에서 시장원회일꾼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호텔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었던 호텔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었던것으로 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조선의 《로동신문》대표단을 위해 특별히 귀한 손님들만 드는 이 호텔을 속속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호텔의 정문으로부터 넓은

세월이 흘러도 더욱 뜨거워지는 친선의 정

홀과 여러곳을 둘러볼수록 조종천선의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이 지어로는 영상이 사무치게 안겨와 눈금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종천선은 시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호텔에 령장을 푼 우리는 시장원회일꾼들의 안내를 받으며 그곳의 보도연락처를 참관하였다.

우리가 탄 차 정문에 도착하니 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미전부터 정문에 나와 기다리던 그들은 《로동신문》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며 우리의 두손을 잡고 오매도록 놓을 줄 몰랐다.

우리는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을 이어갔다.

사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도연락처를 찾아주시었던 그날의 감동깊은 사연을 열정에 넘쳐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모든 분야에 박식하고 소탈하며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영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는 이내로 현대적으로 꾸러진 여러 방들을 돌아

친선의 정

동하게 느낄수 있게 잘 꾸러져 있었다. 박물관의 넓은 홀에는 시를 한눈에 볼수 있는 대형사판이 놓여있었다.

원래 《심정》이라는 지명은 명나라시기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청나라 초기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그 지방 사투리로 들뜬사이의 물결을 《전》 혹은 《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심정은 습지가 많기때문에 그 주변에 길은 물길이나 하나 있는것으로 유명해졌다. 심정은 일명 봉성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곳은 30년전만 해도 자그마한 어촌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물들과 사진자료들을 통해 오늘의 도시를 일찌시엔 근면한 중국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력투쟁을 실감있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곳에서 자주 황소를 형상한 조각품들을 볼수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그 의미를 독특히 알수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 도시를 황소에 비겨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 의미를 묻자 그들은 척박한 땅도 미리물 수그리고 근기있게 갈아엎는 황소처럼 사람들이 난관을 박차고 목표를 향해 힘있게 돌진하는 모습을 황소에 담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

